

## “엄마, 제 초상권도 보호해 주세요.”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중심으로

이정현

들어가며

나 방송 못 하겠어요.

4월 1일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방송에는 ‘통제하는 아빠와 숨 막히는 3남매’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그중 ‘2호 금쪽이’가 촬영을 거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금쪽이’는 엄마와의 통화에서 카메라를 가리고, “재혼 가정이라서 재혼 가정인 거 들리기 싫은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아이의 나이는 19살이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금쪽이’보다 연령층이 훨씬 낮은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아이의 초상권은 부모의 것인가.” 이제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고찰해 봐야 한다.

## 1.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 인간 본연의 욕구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MBC 〈아빠 어디가?〉를 필두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MBC 〈물 건너온 아빠들〉 등 수많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본연의 ‘관음적인 호기심’과 ‘훑쳐보기’의 쾌락에 있다. 때로는 드라마적인 요소를 극대화해 재미와 감동을 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을 관찰하듯 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일종의 ‘관음’을 허용한다. 시청자들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이유 역시 프로그램이 구현하고 있는 일상의 환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관음’을 허락한다. 시청자들은 관찰자가 되어 연예인이라는 삶을 관음하고 본인과 유사한 점을 찾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힐링’하고 쾌락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아빠의 육아 모습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다. 적어도 시작은 그러했다. 특별할 것만 같았던 연예인의 삶이 ‘육아’라는 공통의 코드와 합쳐지면서 공감을 형성했고,

시청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와 맞물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과 순진함, 때로는 귀엽고 영특한 모습들은 시청자에게 쾌락과 웃음을  
주었다.

### 훈육 예능으로의 진화: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의 인기

최근 트렌드는 바뀌었다. 자녀들의 귀여움을 소비하던 시청자들이 아이  
들의 문제와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  
을 통해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파악하는 등 정  
보를 탐색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방영하면서 그것을 교정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훈육 예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인기를 얻은 이유 역시 ‘훈육 예능’을 표방했기 때문이  
다. 해당 방송은 2020년 5월 29일부터 방영 중인 채널A의 육아 프로그램  
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포맷은 이러하다. 패널들과  
‘오은영’ 박사는 VCR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육아 모습을 관찰한다. 출연  
진들은 관찰 영상을 보고 육아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오은영’  
박사는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육아법 ‘금쪽처방’을 내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육아 박사 ‘오은영’ 박사  
를 등장시켜 시청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었다. ‘오은영’ 박사는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하면서 아동 전문  
가로 인지도를 높였다. 한국에는 ‘3대 선생님’이 있다. 바로 요리계의  
‘백종원’, 개통령 ‘강형욱’, 육아계의 ‘오은영’이다. 시청자들은 ‘착한 예  
능’을 표방하고 있는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오은영’ 박사가 내린 솔루션을 신뢰한다. 이처럼 육아 예  
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라는 특성을 가진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시청

자들의 높은 신뢰를 받으며 시청자의 가치관 태도,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2. 자극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아이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를 TV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상황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인격과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KBS <살림남2>는 야구선수 출신 '홍성흔'의 아들 '홍화철'이 친구들과 함께 포경수술을 받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인권은 없냐”, “보기 불편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시청자들은 아동을 강제로 포경수술 하는 장면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아동학대이며, 희화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가수 '개리'가 아들 '하오' 앞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장면을 방송해 비난받은 바 있다. 당시 '하오'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내 '개리'는 “아빠가 장난친 거야”라고 말하며 일어난다. '하오'는 만 2세에 불과했다. 결국 이 장면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국이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이유는 '리얼리티'의 지루함을 극복하고,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시청자에게 비난받고,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건 어린 자녀일 뿐이다.

## 지켜지지 않는 아이들의 초상권: 셰어런팅

2016년 캐나다에서는 13세 소년이 부모가 페이스북에 수천 장의 사진을 올려 본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같이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부모를 ‘셰어런팅’이라고 불렀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이 합쳐진 용어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SNS나 블로그에 아기의 사진을 올리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걸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자랑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아이의 초상권과 디지털 환경 속 ‘잊힐 권리’를 간과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뿐이다.

예능 역시 마찬가지다. ‘착한 예능’을 표방했다라도, 그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아동의 초상권과 사생활은 부모와 제작진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인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비칠지, 방송 출연으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을지 등등을 확실히 알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아동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제작진이 활용해도 되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속 셰어런팅: 낙인효과 발동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는 아이의 이름 대신 ‘금쪽이’라고 부름으로써 시청자들이 아이의 신변보다는 문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그대로 방영되며, 아이의 이름은 음성으로 드러난다. 아동의 초상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방영된 회차에서는 출연한 아동이 “방송 못 하겠어요”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가리는 등 촬영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아이와 부모를 위한 ‘착한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의 의의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훈육 예능을 표방하고 있는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는 훈육 대상이 되는 아이의 심각한 언행까지 공개하고 있다. “엄마, 진짜 나쁜 ×이다. 죽여줘 제발”이라고 하는 13세 딸의 폭언이 그대로 방송되었고, 유희열 출신 ‘이지현’의 아들이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아이의 행동을 고치고 부모로서 솔루션을 듣기 위함이지만,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낙인효과를 발동하도록 했다. 실제 이지현의 아들은 친구에게 ‘정신병자’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

기존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일상을 시청자들이 관찰하고, 아이들의 엉뚱한 모습에서 재미를 느끼는 구조였다면 ‘훈육 예능’을 표방하면서 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이지현’과 이지현의 ‘아들’은 시청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받아야 했다. 훈육 예능의 시청자는 ‘바람직한 훈육’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 평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 건 시청자들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훈육 예능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디지털 환경 속 ‘잊힐 권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문제가 있는 행동이 고스란히 영상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속 세어런팅: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아이의 이미지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55회에는 큰 눈망울을 가진 착한 여자가 이 ‘금쪽이’가 등장한다. 언니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금쪽이’는 이내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염증까지 생기는 문제도 발생한다. 해당 VCR을 본 ‘오은영’ 박사는 ‘금쪽이’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있냐고 묻는다. 다음 VCR에서 ‘금쪽이’의 상처가 드러난다. 항상 퇴근이 늦는 아빠 때문에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했던 엄마가 가출한 적이 있었고, 이는 ‘금쪽이’에게 상처로 남았다. “나는 엄마, 아빠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 ‘금쪽이’가 한 말이다.

“언니가 꼭 안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언니의 말에 “언니 최고”라고 ‘금쪽이’가 답한다. 언니와 ‘금쪽이’는 사이가 좋은 자매였다. 둘은 이내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질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솔직하고 아이다운 순수한 대화였다. ‘오은영’ 박사는 둘의 대화를 ‘가까운 사람들이 꼭 나눠야 하는 대화의 정석’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금쪽이’의 행위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감정을 채워주는 유일한 돌파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 이후 발생한다. 포털 메인에 관련 클립이 “엄마한테 내가 비밀로 해줄게~ 찌찌(?) 만져~”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심지어 썸네일에는 아이의 얼굴까지 노출된 상황이었다. 다른 클립 영상 제목 또한 “찌찌는 긁으면 까칠까칠해서 좋아”였다. 마치 음란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자극적인 해당 제목은 아이의 상처를 그저 장사꾼의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했다. 아이는 불과 6살이었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했고, 결국 영상 제목은 수정되었다. 하지만, 이 영상 제목을 아이가 봤다면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

이다. 아이와 부모를 위한다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3. 육아 예능 프로그램과 아동의 초상권

#### 독립적 인격체: 아이의 초상권

1991년 미국의 유명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 표지에는 아기의 알몸 사진이 등장한다. 해당 앨범 표지는 밴드가 유명해지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 소비되었다. 사진의 주인공 ‘스펜서 엘튼’(현재 31세)은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알몸이 앨범에 사용된 것이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초상권’ 문제를 촉발했다.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의 기획의도는 “육아가 어려운 부모를 위해 베테랑 육아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 및 육아 코칭을 제공한다”이다. 그 취지가 아무리 육아에 지친 부모를 돕기 위함이라고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동은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는 ‘문제를 가진 어린이’에서 ‘해결된 어린이’가 되어도 발동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과연 착한 예능일까’, ‘철저히 부모와 성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프로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방송계는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와 달리 아동에 대한 ‘초상권’ 논의가 이루어진 편이다. 우리보다 초상권에 민감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할리우드 스타

들이 파파라치 사진에 아이 얼굴을 모자이크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3만 5000파운드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잊힐 권리'라는 특별 조항을 개설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정보가 SNS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을 때, 정보 공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독일에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없다. 독일에서 아이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방송과 드라마에 아이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곧 '아동 노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걸쳐 이뤄진다. 또한, 독일은 아이를 미디어에 출연시킬 때, 양육권자뿐 아니라 사회의 동의를 함께 받는다. 이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가 보살펴야 할 미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아이들의 이미지를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개별적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아이의 초상권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 그 권리는 아이들에게 있다.

## 나가며

얼마 전, KBS <핀스토랑>에서 이질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작년 9월 <핀스토랑>에는 '정상훈'의 귀염둥이 세 아들이 등장했다. 본격적인 촬영 시작 전, '정상훈'은 촬영에 관해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TV에 얼굴이 나와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 '상훈'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우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촬영을 허락했고, 허락과 동시에 화면에 얼굴이 공개되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서

이러한 장면을 처음 본다는 게 어색했다. 어찌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걸 ‘정상훈’이 그리고 〈핀스토랑〉에서 보여줬기에 이질적이고, 어색했던 것이 아닐까.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어린 자녀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일상이 노출되고, 주변의 과도한 관심 속에서 자라고 있다. 또한, 한번 방송된 장면은 인터넷에 계속 떠돌아다니며 노출된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받을 혼란과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은 그들의 인격을 침해한다. 미디어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어른들의 이점이 아닌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며 ‘힐링’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이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아이들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의 초상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핀스토랑〉에서 희망을 봤듯이 TV 속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이용되는 게 아닌 보호받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